

대처방식과 외상 후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김 소 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 선 미

McGill University
심리학과

김 보 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양 은 주¹⁾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상 후 심리적 부적응과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메타분석 접근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만이 포함된 국내 연구 17편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대처방식은 접근적-회피적 대처방식과 행동문제중심-인지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두 가지 분류체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심리적 부적응으로는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회피적 대처는 심리적 부적응과 일관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접근적 대처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행동문제중심적 대처는 우울 및 불안과, 인지정서중심적 대처는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두 대처방식 분류체계를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행동문제중심-회피 대처와 인지정서중심-회피 대처는 모두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행동문제중심-접근 대처는 모든 심리적 부적응과, 인지정서중심-접근 대처는 불안을 제외하고 모든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인지정서중심-접근 대처와 불안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본 결과는 회피적 대처가 심리적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외상의 심리적 개입에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외상, 대처방식, 우울, 불안, PTSD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E-mail : yange@korea.ac.kr)

I. 서론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일생에 한번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들, 즉 폭력 피해, 자연재해, 테러,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해, 국제적 테러리즘의 위협 등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연이어 보도되는 강간, 살인 등 흉악범죄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즉 현대 사회의 일상 속에는 심리적 외상의 잠재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심리적 외상이란 주관적으로 지각한 위협적인 사건을 말하는 데, 죽음이나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 학대, 재난, 재해, 전쟁 등이 이에 해당한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8). 이러한 다양한 외상적 사건들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관계적 외상과 타인에 의한 폭력과 같은 관계적 외상으로 구분되며, 특히 관계적 외상 중 매우 친밀한 타인이 관여되는 것을 애착 외상으로 분류한다(Allen, 2005, p.7). 외상 사건은 개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며, 대표적으로 우울, 불안,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 외상적 사건에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상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보고하고, 일상생활, 직업, 대인관계 영역 등 삶의 전반에 손상을 보인다(김세원, 이봉주, 2010; Lamprecht & Sack, 2002).

반면, 직·간접적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기능 손상을 보

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디스트레스나 부적응을 경험한다(Bonanno, 2004). 이와 같은 외상 후 심리적 부적응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양한 개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로는 애착과 같은 성격적 요인(하진의, 2013; Besser & Neria, 2010; Besser, Neria, & Haynes, 2009), 반추와 같은 인지적 요인(Ehlers, 2010; Elwood, Hahn, Olatunji, & Williams, 2009),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식(Clements, Sabourin, & Spiby, 2004; Clements & Sawhney, 2000) 등이 있다.

특히 대처방식은 심리적 외상 후 부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인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오수성, 신현균, 2008; 조용래, 2013; Filipas & Ullman, 2006; Ullman, Townsend, Filipas, & Starzynski, 2007). Folkman과 Lazarus는 대처를 내외적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고 또는 행동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Folkman & Lazarus 1980; Folkman & Lazarus, 1985;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즉, 대처 방식이란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개인적 방식이나 전략을 말한다(Fleming, Baum, & Singer, 1984). 외상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의 완화와 관련된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잠재적인 외상에 직면한 사람들 혹은 실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위한 적절한 개입을 개발하는 것과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처방식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마다 상이하여, 아직까지 합의된 대처방식의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측정하는 도구들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Skinner, Edge, Altman, & Sherwood, 2003). 대처방식의 분류 중 전통적이고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분류방식으로 두 가지 분류체계가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Folkman과 Lazarus의 분류 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들의 정의와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Tenne, Affleck, Armeli, & Carney, 2000). Folkman과 Lazarus는 대처방식을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 1986). 먼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해결하고 문제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적, 또는 인지적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는 것, 문제를 다루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이 있다.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문제로 인해 일어난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것에 집중하는 행동적, 인지적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서적 고통을 표현하고 터뜨리는 것,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 회피하는 것들이 포함 된다.

Folkman과 Lazarus의 대처방식 분류체계와 함께 빈번히 사용되는 또 다른 분류체계는 대처방식을 접근적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처방식으로의 분류한다(Littleton, Horsley, John, & Nelson, 2007). 접근적 대처방식은 위협을 향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이다. 즉 위협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 역시 피하지 않고 다루려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사회적 지지를 찾는 것이 될 수

있다(Tobin, Holroyd, Reynolds, & Wigan, 1989). 반면에 회피적 접근 방식은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아가 위협으로 발생한 정서와 사고를 다루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협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위협과 관련한 생각과 느낌에서 철수하는 것이다(Tobin et al, 1989).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정서중심적 대처방식보다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회피적 대처방식보다는 접근적 대처방식이 스트레스의 감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제중심적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분류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정서중심적인 대처방식에 비해 더 적응적이며, 이는 문제중심적 대처 방식이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 또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처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Dunkel-Schetter, Feinstein, Taylor, & Falke, 1992; Terry, Tonge, & Callan, 1995; Masel, Terry, & Gribble, 1996; Vitaliano, Maiuro, Russo, & Becker, 1987). 유사하게, 대처방식을 접근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로 분류하여 사용한 연구들 역시 접근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스트레스의 감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nyder & Pulvers, 2001). 비록 회피적 대처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고통을 줄여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적응적이며(Snyder & Pulvers, 2001), 스트레스원을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대처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Snyder & Pulvers, 2001).

반면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배우

자 사별 후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애도 증상이 더 적었다고 보고하였다(Bonanno, Keltner, Holen, & Horowitz, 1995). 심근경색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기억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 즉 회피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 사람들이 보다 적응적이고 탄력적이라고 주장하였다(Ginzburg, Solomon, & Bleiche, 2002). 이는 대처방식의 기능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상황에 따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나 접근적 대처방식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나 회피적 대처방식보다 더 부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Folkman & Moskowitz, 2004).

이러한 상황적 맥락의 특수성은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통제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정서적으로 다루거나 회피하는 것이 더 적응적일 수 있다. 개인의 통제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정서중심 대처방식이나 회피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Folkman 등(1986)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서중심적 대처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교현, 전경구,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1994)의 연구에서도 통제가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 통제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획 등 접근적 대처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처방식의 적응적 기능이 문제 상황의 통제가능성과 같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은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대다수의 외상이 재난이나 폭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같이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함을 고려할 때, 문제중심적 혹은 접근적 대처방식이 반드시 적응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개입에 있어서, 외상 사건 이후 개인이 경험한 사건과 인지, 감정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표현하는 것은 적응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것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Bonanno et al., 1995).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치료는 경험을 개방하고 표현함으로써 정서, 기억, 평가 등을 통합함으로써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예방하고자 하며, 외상적 경험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은 부적응적이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Foa, Steketee, & Rothbaum, 1989). 회피적인 대처방식의 사용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유수진, 2003; Bryant & Harvey, 1995; Clohessy & Ehlers, 1999; Coffey, Leitenberg, Henning, Turner, & Bennett, 1996; Ginzburg et al.,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적 사건 후 회피적 대처의 사용이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회피적 대처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애도(Bonanno et al., 1995)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Ginzburg et al., 2002)와 같이 모두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심리적 외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건들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외상적 사건의 맥락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처방식의 기능이 일반적 스트레스 사건에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물론 대처방식과 외상 사건 후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가 여러 연구에서 상반되게 나타나는 데에는 측정도구의 이질성이 관여하였을 수 있다.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에 대한 국외 메타 연구에 의하면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Ways of Coping과 COPE, Coping Strategies Inventory를 대조 분석한 결과, Ways of Coping을 이용한 연구들에서 다른 두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에 비해 적극적 대처와 외상 후 긍정적 적응의 상관성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Littleton et al., 2007). 또한 많은 외상 연구들의 경우, 성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How do I deal with things(Burt & Katz, 1988)와 같이 특정한 외상 집단에 특화된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권해수 & 이재창, 2003; 유수진, 2003; 이유미, 2009)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대처방식 척도와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개별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종합하면, 외상 후 부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는 외상이라는 상황적 맥락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상 연구들은 이질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측정도구들이 사용된 다수의 외상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적절할 수 있다. 메타분석이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개별 연구들을 한데로 종합하여 합산하는 통계적 방법이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11). 이 분석 방법은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총체적인 결론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메타분석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개별 논문들은 공통된 하나의 모수(동일한 연구주제)를 가정하는 자료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연구진행방법이나 실험조건 등에서 차이가 나는 연구들도 통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추정된 메타분석의 결과는 일반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 가설에 대한 하나의 객관적인 종합수치로서 새로운 연구 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더불어 현재 연구 동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외상이라는 상황특수적인 사건에 국한하여 이후의 부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본 사례가 있다(Littleton et al., 2007). Littleton 등(2007)은 우

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수준을 중심으로 대처방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대처방식은 일차적으로 접근적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각을 행동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으로 구분하여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피적 대처방식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방식의 경우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과 매우 작지만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반면에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외상사건에 있어서도 회피적 대처는 부적응적이라는 것을 지지하나, 접근적 대처의 경우 적응적인 기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연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 간 메타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일상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다룬 연구는 다수이나,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국내 외상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상 경험으로는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기 학대(김민정, 1997; 김성준, 김은정, 2009; 석미란, 장은영, 2013; 손인기, 이종훈, 송창진, 사공정규, 이광현, 2001; 유수진, 2003; 이은영, 2009; 이태영, 심혜숙, 2011; 장희순, 이승연, 2013)와 사고(고경모 등, 2007; 김교현, 권선중, 2008; 김선홍, 심윤섭, 2003; 신동균, 이준상, 이민수, 최윤경, 1997; 이선미, 김동인, 2000; 이은정,

임경희, 김정범, 류설영, 2007; 이재광, 박두병, 기백석, 1996; 이재영, 기백석, 조순동, 서동수, 2003; 최원선 등, 2011)를 다룬 연구들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 성폭행(권해수, 2014; 권호인, 권정혜, 2005; 김수곤, 박예규, 강윤단, 2012; 김현희, 2004; 박경, 2006; 우재희, 2012; 원경희, 2008; 정주은, 천성문, 2013; 한인영, 강향숙, 백형의, 2013), 가정폭력(고강호, 2005; 김광일, 2001; 이성진, 조용래, 2009; 이영점, 최은봉, 2011; 정서영, 김명자, 1996)이 뒤를 잇고 있다. 그 외 노인 학대(고보선, 2004; 권중돈, 2004; 김한곤, 김지아, 2006; 서인균, 고민석, 2011; 송영민, 2003; 양경미, 2003; 이연호, 2003a; 이연호, 2003b; 임구원, 2011), 학교폭력(박범규, 2009; 박영신, 김의철, 2001; 석미란, 장은영, 2013;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이은희, 김혜진, 홍경자, 2002; 정성희, 송현주, 2012) 등 다양한 외상사건에 대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한다.

아울러 외상 후 적응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불안(권해수, 이재창, 2003; 김동주, 2003; 송은영, 하은혜, 2008; 유수진, 2003; 이시중, 임세라, 2012; 이유미, 2009; 이유진, 연규월, 우행원, 김영철, 임원정, 2002; 최수아, 2013; 최지영, 2013), 우울(김교현, 권선중, 2008; 김세진, 김교현, 2008; 도상금, 최진영, 2003; 박경, 2012; 신동균 등, 1997; 이선미, 유성경, 2013; 이시중, 임세라, 2012; 조선덕, 박재범, 2013; 최원선 등, 2011; 최지영, 2013; 한인영, 이지영, 구승신, 200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김교현, 권선중, 2008; 김선홍, 심윤섭, 2003; 남순현, 염태호, 1998; 유수진, 2003; 이선미, 김동인, 2000; 이성진, 조용래, 2009; 이

유진 등, 2002; 이은정 등, 2007; 이재영 등, 2003), 자살사고(김보미, 유성은, 2012; 류석환, 2014; 윤명숙, 김서현, 2012), 분노(김세진, 김교현, 2005; 박인구, 한기백, 2014; 신현복, 2012;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이지영, 손정락, 2010; 이해련, 신미경, 문현숙, 2013; 조한익, 최중환, 2013), 삶의 질(김수현, 김교현, 2012; 노승호, 천영훈, 1998; 박준순, 노승호, 1997; 윤명숙, 이준석, 지홍, 김성혜, 2012; 이인정, 2012; 전소영, 하주영, 2012), 자아존중감(노인숙, 원정숙, 2009; 최대현, 심호규, 2013; 최윤경, 2010; 허정윤, 유영달, 2012), 희망(원경희, 2008)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왔다. 반면 이러한 외상 후 부적응 지표들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예: 오수성, 신현균, 2008; 이상준, 2013).

또한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는 외상을 실제로 보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지현, 박기환(2009)의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과 경험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PTSD 증상과 우울, 불안, 대처방식 등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국내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 간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외국의 메타분석 선행연구가 시사점을 가지나, 대처방식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러한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인지정서중심의 접근적 대처방식에 해당하는 수용(acceptance)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서구권에서는 이를 접근적인 대처로 분류하나,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팔자 타atro 귀인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한국 문화적 경향성(김지영, 김기범, 2005)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외적귀인이 국내연구에서는 수용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수용과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억압하거나 신체증상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황연미, 2009) 이러한 회피적 방식이 사회적으로 더 수용된다(김광일, 2001; 전검구, 2000). 이처럼 회피적 대처가 서구권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더 긍정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피적 대처와 개인적 적응의 관계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외상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는 외상 후 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상 연구들 중 외상을 보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외상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실제 외상을 보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메타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 대처방식에 대한 분류체계들을 활용하여 개별 연구들에서 사용된 이질적인 대처방식 척도들을 범주화하고, 다양한

대처방식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분류체계에 따라 연구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 메타분석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한 대처방식 분류체계(행동문제중심-접근적, 인지정서중심-접근적, 행동문제중심-회피적,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방식)와 외상 후 부적응 지표(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방 법

1. 연구대상선정

메타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이미 출판된 연구들이므로, 메타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을 수집할 때 연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도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출판논문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의 학술데이터베이스(KSI KIS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검색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는 199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출간된 자료로 국한하였다. 연구출판형태에 있어서 수집된 연구가 학술지 논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학위논문 역시 검색하였다. 학위 논문은 공식적으로 출판된 연구는 아니지만, 메타분석 시 결과가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좋은

자료가 된다(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분석자료 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연구자들이 사전에 함께 논의하여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대처방식’ 또는 ‘대처’와 ‘PTSD’, ‘폭력’, ‘외상’, ‘재난’, ‘사고’, ‘학대’, ‘재해’, ‘피해’를 교차 검색하였다. 연구자들은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들의 주제가 외상적 사건, 즉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사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논의하였다. 그에 따라, 아동기 학대, 성관련 피해 및 폭행, 학교폭력, 가정폭력, 노인 폭력, 재해, 사고(사상사고의 경험 및 목격)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대리 외상에 대한 논문은 다른 외상과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통계자료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연구나 질적 연구, 심리개입 및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 ‘대처’를 ‘coping strategies’가 아닌 ‘prevention’의 의미로 사용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연구들 중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외상 후 적응의 지표로 사용한 연구만을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이 같은 일차 분류를 통해 선정된 논문은 총 학술지 논문 83편, 학위논문 172편이었다.

일차분류를 통해 선정된 연구들은 다음의 제외기준에 따라 재분류되었다. 첫째, 발달적 차이로 인한 효과가 혼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외상 연구를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변인에 대한 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은 연구들 역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처방식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일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제외되었으며, 우울과 불안을 심리적 고통감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분석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총점이 아닌 하위증상별로만 제시한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단,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나누어 제시한

표 1. 최종 선정 연구

일련 번호	연도	저자	출판 형태	표본수 (명)	여성 비율 (%)	외상의 종류	측정도구			
							대처방식	우울	불안	PTSD
1	1996	정서영 김명자	학술지	257	100	가정폭력 (신체)	Straus 갈등관리 방법척도	CESD	-	-
2	2000	이선미 김동인	학술지	68	39.7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손상	Ways of Coping Checklist	-	-	CAPS
3	2001	홍창희 박유숙	학술지	159	100	가정폭력	Ways of Coping Checklist	BDI	-	PDS
4	2003	유수진	학위 논문	280	100	성학대	How I deal with things	SCL-90-R	SCL-90-R	-
5	2002	이선미 김정희	학술지	47	46.8	버스추락사고	Ways of Coping Checklist	-	-	IES CAPS
6	2003	권혜수 이재창	학술지	119	100	성학대	How I deal with things	SCL-90-R	SCL-90-R	-
7	2004	김지혜	학위 논문	102	100	가정폭력	Straus 갈등관리 방법척도	BDI	-	-
8	2008	오수성 신현균	학술지	311	15.0	국가재난 (5.18)	Ways of Coping Checklist	-	-	PSSI
9	2009	이성진 조용래	학술지	103	100	가정폭력	Coping Strategy	-	-	IES-R
10	2009	이유미	학위 논문	87	81.6	성학대	How I deal with things	SCL-90-R	SCL-90-R	-
11	2010	배점모	학술지	504	6.2	화재구조	Ways of Coping Checklist	-	-	IES-R PDS
12	2010	박형채	학위 논문	119	68.1	클라이언트 폭력	Brief COPE	-	-	IES-R
13	2011	김민경	학술지	19	0	총기사건	Ways of Coping Checklist	BDI	BAI	PDS
14	2013	이상준	학술지	696	41.9	아동기 학대	Ways of Coping Checklist	SCL-90-R	SCL-90-R	-
15	2012	양미현 이은일 최재욱 김해준	학술지	73	27	재난 구조	Ways of Coping Checklist	-	-	IES-R
16	2012	양승경	학위 논문	164	100	암진단	Ways of Coping Checklist	-	-	IES-R
17	2013	유재두	학술지	357	4.2	직무중 외상	Brief COPE	-	-	IES-R

주.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ed; IES-R=Impact of Event Scale-Revised;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AI=Beck Anxiety Inventory; PDS=Post-traumatic Stress Diagnostic Scale; K-YSR=Korea-Youth Self Report; PSSI=PTSD Symptom Scale Interview; CAPS=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경우에는 상태불안의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연구들을 제외하였다. 이 같은 제외기준에 따라 총 2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메타분석에 요구되는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들이 제외되었다. 오즈비(김교현, 권선중, 2008)와 다중회귀계수(양경미, 2003)로 결과가 제시된 두 편의 논문은 본 연구의 효과크기인 상관계수로 변환이 불가능하여 제외되었다. 또한 한 연구는 대처와 불안 및 우울 증상의 상관계수를 .90-.97로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 메타 예비분석 결과 통계적 이상치(outlier)로 고려되어(김민정, 1997) 본 분석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이 총 17편의 연구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2. 대처방식의 분류

검색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대처방식 척도가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Littleton 등(2007)의 국외메타분석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체계를 참고하였다. Littleton 등(2007)의 연구에서는 대처방식 분류는 일차적으로 접근적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고, 이차적으로 다시 이것을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접근적/회피적 대처방식과 행동문제중심/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으로 각

각 분류하고, 이차적으로 다시 이 두 분류방식을 통합하여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로 세분화하였다.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는 Folkman과 Lazarus가 개발한 Ways of Coping Checklist(Folkman & Lazarus, 1985)이었으며, 총 10개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척도는 강간 피해자들의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로 Burt와 Katz(1988)가 개발한 How I deal with things로, 총 3개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Straus(1979)의 갈등관리방법척도와 Brief COPE(Carver, 1997)는 각각 2개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단일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는 Coping Style Indicator(Amirkhan, 1990), Coping Strategy(Holahan & Moos, 1987)가 있었다.

대처방식의 분류를 위하여 연구자 2인은 Littleton 등(2007)의 분류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분류한 뒤, 각 하위요인의 분류 타당성을 토의하여 대처방식의 범주를 결정하였다. 다양한 척도들의 하위요인 분류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차기준으로 두 개의 대처방식, 즉 접근적/회피적 대처방식과 행동문제중심/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으로 범주화하고, 이차적으로 두 대처방식을 통합하여 행동문제중심-접근적, 인지정서중심-접근적, 행동문제중심-회피적,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방식으로 세분화하였다. 만약 특정 하위요인이 하나의 기준으로만 분류되고, 다른 기준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경우(예: 접근적 대처에 해당하나 행동문제중심과 인지정서중

표 2. 대처방식척도의 대처 유형 구분

하위요인	대처방식 유형			
	접근적	회피적	행동문제중심	인지정서중심
Ways of Coping Checklist (Folkman & Lazarus, 1980)				
소망적사고		O		O
정서완화적		O		O
문제중심적	O		O	
사회지지추구	O			O
How I deal with things (Burt & Katz, 1988)				
표현	O			O
인지	O			O
불안신경				
회피		O		
자기파괴		O	O	
Straus 갈등관리 방법척도 (Straus, 1979)				
적극적행동	O		O	
사회지지추구	O			O
합의	O		O	
회피		O		
Brief COPE (Carver, 1997)				
정서중심	O			O
문제중심	O		O	
역기능		O		
Coping Style Indicator(CSI) (Amirkhan, 1990)				
회피		O		
Coping Strategy (Holahan & Moos, 1987)				
회피		O		

주. Brief COPE의 하위 요인은 14가지로 다양하나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은 3요인 즉, 정서중심, 문제중심,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음. How I deal with things의 불안신경대처는 접근-회피, 행동문제중심-인지 정서중심 대처에 해당하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 어느 기준으로도 분류되지 않았음.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 중 Coping Style Indicator, Coping Strategy를 이용한 연구들의 경우 하위요인 중 회피적 대처방식만을 사용하였음.

심 대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류 가능한 일차기준에 기초한 분석에만 포함하였다. 또한 한 연구에서 특정 대처방식의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요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예: 두 개의 대처방식 하위요인이 모두 회피적 대처에 해당하는 경우) Littleton 등(2007)의 연구절차를 따라 이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척도들과 분류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료입력 및 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들은 코딩 목록(일련번호, 논문제목, 출판년도, 저자, 출판형태, 표본 수, 연구 대상자의 성별 비율, 평균연령, 외상 사건의 종류, 외상 후 적응의 종류, 대처방식 측정 척도, 연구에서 사용된 효과크기)을 기준으로 입력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효과크기는 Pearson의 상관계수와 이를 표준화시킨 Fisher의 Z_r 이며, 개별 논문에서 효과크기가 상관계수로 제시되지 않은 두 편의 논문(이선미, 김동인, 2000; 이선미, 김정희, 2002)은 상관계수로 환산(Rosenthal, 1991)해 사용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자료는 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인 MIX 1.7(Bax, Yu, Ikeda, Tsuruta, & Moons, 2006)을 이용하여 종합평균효과크기의 산출, 동질성 검정, 출판편향 여부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들의 동질성 여부는 Q-통계량(Cochran, 1954)을 이용한 카이제곱검정과 Higgins의 I^2 (Higgins, Thompson, Deeks, & Altman, 2003)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I^2 는 75%이상일 때 이질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들이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확인되면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통해 종합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계산된 효과크기는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Cohen(1988)이 사용한 기준에 따라 종합 평균 효과크기를 다시 Pearson의 상관계수로 계산한 값의 절댓값이 0.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작은 효과크기’, 0.3이면 ‘중간 효과크기’, 0.5보다 크면 ‘큰 효과크기’라 해석하였다.

메타분석 결과의 신뢰도는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Trim-and-Fill 방법으로 교정해 얻은 효과크기를 통해 점검하였다. Trim-and-Fill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메타분석 시 누락되었을 수 있는 연구의 개수를 추정하여 분석에 채워 넣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은 출판편향으로 인해 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연구자가 더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종적으로 포함된 연구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인 하위그룹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III. 결 과

1. 일반적 특성

이번 연구에 포함된 17편의 국내 논문들은 한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 이후에 출판되었으며, 이 중 12편(63%)이 학술지 발표 논문이었고 나머지 5편은 석·박사 학위

표 3. 외상 후 심리적 부적응 지표에 따른 최종 선정 연구의 일반적 특성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 수	연구 한편 당 평균 표본 수(명)	총 표본 수(명)	학술지 논문 비율 (학위논문대비)
우울	8	214.88	1,719	62.50%
불안	5	240.20	1,201	60.00%
PTSD	11	174.91	1,924	81.82%

논문이었다. 총 표본 수는 3,465명으로, 논문 한 편당 평균 약 203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상자 성별이 여성 50% 이상인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본 메타연구에서 기준으로 삼은 3가지 외상 후 부적응 지표(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를 기준으로 17편의 논문들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3). 대처방식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을 측정하는 것보다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측정하는 형태로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다른 논문들의 학술지 발표 비율이 다른 외상 후 부적응 지표를 다룬 연구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다.

2. 메타분석: 접근적 및 회피적 대처방식과 심리적 부적응

우선,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대처방식을 접근적 대처방식과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여 외상 후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표 4). 외상 후 적응지표가 우울이고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분류된 연구들($Q = 4.24, I^2 = 0\%$)과 불안이고 회피적 대처방식으로 분류된 연

구들($Q = 3.75, I^2 = 0\%$)은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정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고, 나머지 분류에 속한 모든 연구 간에는 이질성이 존재하여 랜덤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회피적 대처방식은 모든 외상 후 부적응 지표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즉 유의미한 양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우울 Weighted $r = .25, p < .001$; 불안 Weighted $r = .29, p < .00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Weighted $r = .36, p < .001$). 반면에 접근적 대처방식은 우울(Weighted $r = .06$), 불안(Weighted $r = .1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Weighted $r = .14$)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의 신뢰도를 살피기 위해 Fail-safe N과 Tolerance level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접근적 대처와 불안-접근적 대처 분류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Fail-safe N이 Tolerance level보다 큼에 따라 메타분석 결과는 안정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3. 메타분석: 행동문제중심 및 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과 심리적 부적응

다음으로 대처방식을 행동문제중심과 인지정서중심으로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

표 4. 접근적 및 회피적 대처방식 구분에 따른 메타분석 결과

	<i>k</i>	<i>n</i>	C.I. (95%)	Weighted <i>r</i>	Average <i>Z</i>	<i>Q</i>	<i>I</i> ² (%)	Fail-safe <i>N</i> (Tolerance level)
우울								
접근적 대처	8	1,719	-.03/.14	.06	1.35	16.20 [*]	56.78	0(50)
회피적 대처	8	1,719	.21/.30	.25	10.87 ^{***}	4.24	0	190(50)
불안								
접근적 대처	5	1,201	-.03/.23	.10	1.44	13.62 ^{**}	70.63	2(35)
회피적 대처	5	1,201	.24/.35	.29	10.66 ^{***}	3.75	0	129(35)
PTSD								
접근적 대처	10	1,821	-.01/.29	.14	1.78	84.69 ^{***}	89.37	84(60)
회피적 대처	11	1,924	.28/.44	.36	8.81 ^{***}	30.63 ^{***}	67.35	723(65)

주. *k* : 포함된 연구수, *n*: 포함된 연구의 연구대상의 총합, C.I.(95%): 신뢰구간, Weighted *r* : Pearson 상관 계수로 환산한 효과크기 값, Average *Z*: *Z* statistic, *Q* : Cochran의 동질성검증(*Q*-test) 통계량, *I*² : Higgins의 *I*² 값, Fail-safe *N*(Tolerance level): 효과크기의 민감성 지표

* *p* < .05. ** *p* < .01. *** *p* < .001.

표 5. 행동문제중심 및 정서인지중심 대처방식 구분에 따른 메타분석 결과

	<i>k</i>	<i>n</i>	C.I. (95%)	Weighted <i>r</i>	Average <i>Z</i>	<i>Q</i>	<i>I</i> ² (%)	Fail-safe <i>N</i> (Tolerance level)
우울								
행동문제 대처	5	845	.21/.35	.28	7.42 ^{***}	3.41	41.4	42(25)
인지정서 대처	8	1,719	-.12/.29	.08	.79	14.82 ^{***}	86.5	1(25)
불안								
행동문제 대처	4	1,182	.25/.42	.34	7.88 ^{***}	5.55	63.95	50(25)
인지정서 대처	5	1,201	.07/.24	.16	3.47 ^{***}	1.01	0	6(25)
PTSD								
행동문제 대처	4	1,053	-.16/.51	.17	1.01	26.61 ^{***}	92.48	30(25)
인지정서 대처	10	1,821	.31/.52	.42	7.48 ^{***}	.31	0	36(25)

주. *k* : 포함된 연구수, *n*: 포함된 연구의 연구대상의 총합, C.I.(95%): 신뢰구간, Weighted *r* : Pearson 상관 계수로 환산한 효과크기 값, Average *Z*: *Z* statistic, *Q* : Cochran의 동질성검증(*Q*-test) 통계량, *I*² : Higgins의 *I*² 값, Fail-safe *N*(Tolerance level): 효과크기의 민감성 지표

* *p* < .05. ** *p* < .01. *** *p* < .001.

다(표 5). 외상 후 적응지표가 우울이고 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으로 분류된 연구들($Q = 14.82, p < .001, I^2 = 86.5\%$)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고 행동문제중심 대처방식으로 분류된 연구들($Q = 26.61, p < .001, I^2 = 92.48\%$)을 제외한 모든 분류는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고정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고, 이질성이 존재하는 위의 두 분류의 연구들은 랜덤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행동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외상 후 부적응 지표 중 우울과 불안에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즉 유의미한 양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우울 $Weighted\ r = .28, p < .001$; 불안 $Weighted\ r = .34, p < .001$). 또한 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은 불안($Weighted\ r = .16, p < .001$)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Weighted\ r = .42, p < .001$)와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의 신뢰도를 살피기 위해 Fail-safe N과 Tolerance level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인지정서중심 대처와 불안-인지정서중심 대처 분류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메타분석 결과는 안정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4. 메타분석: 접근적/회피적 대처방식과 행동문제중심/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을 통합한 대처방식 분류체계와 심리적 부적응

마지막으로 대처방식을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로 분류한 메타분석의 결과도 살펴보았다(표

6).

동질적인 연구로 분류된 우울과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 우울과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 불안과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불안과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 불안과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는 고정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고, 이질성이 존재하는 연구들은 랜덤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단일연구만이 포함된 불안과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의 관계는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PTSD와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의 관계로 분류된 연구는 없어 효과크기가 산출되지 않았다.

그 결과, 행동문제중심과 인지정서중심에 관계없이 모든 회피적 대처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즉 유의미한 양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우울의 경우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와 $Weighted\ r = .27(p < .001)$,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와 $Weighted\ r = .28(p < .001)$ 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불안에 대해서도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Weighted\ r = .34, p < .001$)와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Weighted\ r = .30, p < .001$)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행동문제중심-회피적 대처가 약간 더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PTSD의 경우 역시 인지정서중심-회피적 대처와의 관계에서 $Weighted\ r = .36(p < .001)$ 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진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

접근적 대처의 경우 행동문제중심 혹은 인지정서중심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 가지 예외로서, 불안과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 간에 작은

표 6. 두 가지 대처방식 분류를 교차하여 구분한 대처분류에 따른 메타분석 결과

	<i>k</i>	<i>n</i>	C.I. (95%)	Weighted <i>r</i>	Average <i>Z</i>	<i>Q</i>	<i>I</i> ² (%)	Fail-safe <i>N</i> (Tolerance level)
우울								
행동문제중심-접근	2	359	-.14/.45	.16	1.03	6.90**	85.51	5(20)
인지정서중심-접근	5	845	-.06/.17	.06	.98	10.63*	62.38	0(35)
행동문제중심-회피	3	486	.18/.36	.27	6.14***	3.25	38.46	28(25)
인지정서중심-회피	3	874	.22/.25	.28	8.74***	.33	0	42(25)
불안								
행동문제중심-접근	1	280						
인지정서중심-접근	3	486	.07/.24	.16	3.47***	1.01	0	6(25)
행동문제중심-회피	3	486	.25/.42	.34	7.88***	5.54	63.95	50(25)
인지정서중심-회피	2	715	.23/.37	.30	8.33***	2.51	60.22	30(20)
PTSD								
행동문제중심-접근	4	1,053	-.18/.41	.12	.78	61.73***	95.14	25(30)
인지정서중심-접근	3	549	-.12/.25	.06	.63	7.98*	74.95	0(25)
행동문제중심-회피								
인지정서중심-회피	8	1,345	.26/.47	.36	6.56***	25.51***	72.56	369(50)

주. *k* : 포함된 연구수, *n*: 포함된 연구의 연구대상의 총합, C.I.(95%): 신뢰구간, Weighted *r* : Pearson 상관계수로 환산한 효과크기 값, Average *Z*: *Z* statistic, *Q* : Cochran의 동질성검증(*Q*-test) 통계량, *I*² : Higgins의 *I*² 값, Fail-safe *N*(Tolerance level): 효과크기의 민감성 지표

* $p < .05$. ** $p < .01$. *** $p < .001$.

효과크기가 관찰되었다(Weighted $r = .16$, $p < .001$).

마지막으로, 위의 메타분석 결과가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Fail-safe *N*과 Tolerance level을 비교하였다. 우울과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 우울과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불안과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PTSD와 행동문제중심-접근적 대처, PTSD와 인지정서중심-접근적 대처, 총 다섯 가지 분류에서 Fail-safe *N*이 Tolerance level 보다 작았으며, 이

러한 결과는 추후 관련 연구가 추가될 경우, 메타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메타분석 결과는 강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외상 사건 후 심리적 적응과 대처방식 간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처방식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류방식에 따른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처방식을 회피적 대처방식과 접근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회피적 대처방식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우울, 불안, PTSD증상을 포함하는 심리적 부적응이 일관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접근적 대처방식은 우울, 불안, PTSD증상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접근적 대처방식이 우울, 불안, PTSD 증상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적응적 대처방식이라는 기존의 주장(Snyder & Pulvers, 2001)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접근적 대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스트레스원과 차별되는 심리적 외상의 특수성 때문일 수 있다. 동일한 대처방식이라도 상황이 가진 특수성에 따라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Folkman & Moskowitz, 2004). 심리적 외상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사고, 폭력,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 등 대부분 비교적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통제감이 낮은 외상 상황에서의 적극적 대처가 반드시 기능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대처방식을 행동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인지정서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행동문제중심적 대처와 인지정서중심적 대처 모두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특히 행동문제중심적 대처는 우

울 및 불안과, 인지정서중심적 대처는 불안 및 PTSD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행동문제중심적 대처와 인지정서중심적 대처 모두 부정적인 심리 적응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적극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 각각이 심리적 부적응과 가지는 관계가 명확하게 변별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인지정서중심적 대처에 비해 더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행동문제중심적 대처가(Dunkel-Schetter et al., 1992; Masel et al., 1996; Terry et al., 1995; Vitaliano et al., 1987) 심리적 외상 상황에서 오히려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처방식의 적응적 기능이 스트레스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근적 대처의 경우 심리적 부적응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행동문제중심적 대처는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은 두 분류체계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분류체계를 교차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접근적-회피적 대처방식과 행동문제중심-인지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모두 고려한 4가지 유형의 대처방식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동문제중심-회피 대처와 인지정서중심-회피 대처는 모두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 불안, PTSD 증상수준 역시 높게 보고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즉, 외상 후 회피적 대처는 이것이 행동문제중심이건 인지정서중심이건에 관계없이 부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문제중심-접근 대처와 인지정서중심-접근 대처는 대부분

의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행동문제중심-회피 대처와 인지정서중심-회피 대처가 모두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것은 외국 선행연구(Littleton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것이다.

두 대처방식 분류체계를 함께 고려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행동문제중심-인지정서중심 대처 분류체계보다 접근적-회피적 대처 분류체계가 외상 후 대처방식의 차별화된 기능을 반영하는데 더 적절한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접근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는 각기 심리적 부적응과 반대되는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서로 구분되는 관계 양상을 나타내나, 행동문제중심 대처와 인지정서중심 대처는 심리적 부적응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유사한 양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접근적 대처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지정서중심-접근 대처와 불안의 상관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동문제중심-접근 대처와 심리적 디스트레스간 상관을 보고한 기존 외국 선행연구(Littleton et al., 2007)와도 구분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예외적 결과는 연구도구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은 모두 성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How I deal with things 척도(Burt & Katz, 1988)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척도들의 경우 인지정서중심-접근 대처로 분류되는 하위척도들이 대부분 사회적 지지추구인 것에 비해, 이 척도에서는 표현적 대처와 인지적 대처가 인지정서중심-접근 대처로 분류되었다. 이 중 표현적 대처는 감정발산(venting)과 같이 정서적 각

성을 유발하는 대처방식이기 때문에 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외상 후 심리적 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다양한 대처방식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분류체계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대처로 알려져 있는 접근적 대처나 행동문제중심 대처는 외상 후 적응과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이러한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부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상 상황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회피적 대처와 인지정서중심 대처는 외상 상황에서도 여전히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처방식의 적응성은 행동문제중심-인지정서중심 대처 분류체계보다 접근적-회피적 대처 분류체계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두 가지 대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외상 후 심리적 부적응을 악화시키는 대처방식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나, 이를 완화시키는 대처방식을 확인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외상 후 심리적 적응과 대처방식에 대한 국내 연구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질적인 결과들을 통합해 내고자 하였다. 특히 존재하는 다양한 대처방식을 분류하는 체계들을 비교함으로써 추후 연구에서 어떠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외상에 대한 심리적 개입과 관련하여서, 본 연구 결과는 PTSD의 치료에서 외상적 경험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치료적 입장(Foa et al., 1989)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들의 치료에서 회피적 대처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치료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접근적 대처와 외상 후 심리적 부적응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임상적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접근적 대처 전반에 대한 것이며 이에 포함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하위대처들의 효과나 매개 및 조절과정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임상장면에서 개입의 초점으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접근적 대처의 효과를 일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수가 작다는 점이다. 외상 후 심리적 적응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상을 경험한 연구대상을 사용한 연구에만 국한하여 엄격하게 연구를 선정하다보니 초기 검색된 연구들의 매우 일부만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과의 안정성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적은 연구 수로 인해 대처방식 측정도구나 심리적 외상 사건의 유형(예를 들어 대인간 외상과 재난 등), 혹은 성별 등의 개인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 역시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상과 달리 외국 메타 연구와 구분되는 문화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제한점으로 사료된다. 회피적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잘 수용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한국 문화권에서는 회피적 대처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처 측정도구들이 서구권에서 개발된 것으로 문화적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측정도구들의 비교 문화적 동등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우리 문화 특장적인 대처방식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양적 연구들이 요구된다. 셋째, 분석에 포함된 연구결과들이 모두 횡단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방식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회피적 대처의 사용이 심리적 부적응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으나, 반대로 심리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대한 통제감이나 효능감이 낮아져 더욱 회피적 대처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 PTSD환자들이 비PTSD군에 비해 다양한 모든 종류의 대처방식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purrell, & McFarlane, 1993), 이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감이 대처방식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것으로 알려진 접근적 대처나 행동문제중심 대처가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보다 조심스럽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적은 연구수와 외상 유형 및 연구도구의 이질성으로 인해 보다 세분화된 대처방식의 분류가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 외상 유형에 따라 개별 대처방식이 가지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접근적 대처나 행동문제중심 대처들의 기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상 유형과 세분화된 대처방식

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결과들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강호 (2005). 가정폭력피해자 집단에 대한 사이코드라마 경험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8, 5-19.
- 고경모, 최성훈, 김재수, 박서영, 이윤규, 이윤경, . . . 이은경 (2007). 교통사고 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후유증 환자에 대한 고찰 -SCL-90-R 중심으로. *대한침구의학회지*, 24(6), 63-68.
- 고보선 (2004). 제주노인의 학대피해경험과 정서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3), 249-268.
- 권중돈 (2004).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 권해수 (2014). 성폭력피해자의 치유상담 내용 구성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5(1), 1-15.
- *권해수, 이재창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양식 및 대처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22-31.
- 권호인, 권정혜 (200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지속노출치료: 강간 피해자 증례 보고 1례. *인지행동치료*, 5(1), 11-23.
- 김광일 (2001). 가정폭력 피해자 후유증 및 특징 - 배우자 폭력: 희생자 및 가해자의 심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1(1), 21-34.
- 김교현, 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ECO*, 12(1), 83-107.
- 김교현, 전경구,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4-135.
- 김동주 (2003). 아내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11).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자 연구: 정신적 후유상태 및 스트레스 대처와 통제소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571-585.
- 김민정 (1997). 여대생의 아동기 성학대 피해 경험과 심리사회적 손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미, 유성은 (2012).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31-748.
-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 아동, 청소년의 우울 관련 변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4), 533-555.
- 김선홍, 심윤섭 (2003).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 1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4(1), 175-181.
- 김성준, 김은정 (2009).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점진적 노출기법을 적용한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395-414.
- 김세원, 이봉주 (2010). 아동학대와 적응의 잠재적 유형 간 관계. *인간발달연구*, 17(1), 173-189.
- 김세진, 김교현 (2005). 아동의 외상경험에 대

- 한 자기노출이 분노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47-65.
- 김세진, 김교현 (2008). 일반심포지엄: 재난과 심리적 삶의 변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태안 사람들의 심리적 삶의 변화; 재난을 경험한 태안주민들의 스트레스 대처 패턴.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8, 6-7.
- 김수곤, 박예규, 강운단 (201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분석: 충남 원스톱지원센터 내원자를 중심으로. *Gynecology Science*, 55(10), 736-744.
- 김수현, 김교현 (2012). 삶의 질을 예측하는 침입사고와 외상 후성장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 207.
- 김지영, 김기범 (2005). 한국인의 자기신세 조망양식으로서 팔자의 이야기 분석과 통제신념과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85-108
- *김지혜 (2004).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학대에 대한 대처방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곤, 김지아 (2006). 대구지역 노인 학대 실태 및 피해자의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19, 179-198.
- 김현희 (2004).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파워먼트 접근의 유용성. 임상사회사업연구, 1(2), 37-58.
- 남순현, 염태호 (199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성격요인과 대처방식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71-184.
- 노승호, 천영훈 (1998).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임상적 고찰. 원광정신의학, 14(1), 3-20.
- 노인숙, 원정숙 (2009). 새터민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8(1), 69-77.
- 도상금, 최진영 (2003). 외상 경험 및 우울과 자서전적 기억의 일반화 경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21-341.
- 류석환 (2014). 소방공무원의 자살 사고와 불안, 삶의 질의 관련성.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5(1), 29-35.
- 박 경 (2006).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327-344.
- 박 경 (2012). 외상경험 대학생들의 반추 양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21-64.
- 박범규 (2009). 학교폭력의 심리적 원인과 그 대책. 인권복지연구, 5, 27-57.
- 박영신, 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인구, 한기백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공격성의 관계: 분노와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375-397.
- 박준순, 노승호 (1997).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4), 648-657.
- *박형채 (2010).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사회복지

- 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점모 (2010). 소방공무원의 출동충격, 사회적 지지, 대처행태와 PTSD 증상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4(3), 141-163.
- 서인균, 고민석 (2011). 학대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1(1), 127-157.
- 석미란, 장은영 (2013). 중학생들의 학교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동기 외상경험, 학교폭력 및 정신의학적 문제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329-348.
- 손인기, 이종훈, 송창진, 사공정규, 이광현 (2001). 아동기 학대 경험 및 인지된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불안장애 환자의 해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생물치료정신의학, 7(1), 38-44.
- 송영민 (2003). 피학대 여성 노인의 의존성에 관한 생애사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3, 85-120.
- 송은영, 하은혜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 신동균, 이준상, 이민수, 최윤경 (1997). 삼풍사고 생존자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36(4), 612-619.
- 신현복 (2012). 집단미술치료가 복합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분노표현 양식변화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8, 5-31.
-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외상관련 정서의 확장. 상담학연구, 13(2), 839-854.
- 양경미 (2003). 재가 노인의 학대와 대처방안 및 학대결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현, 이은일, 최재옥, 김해준 (2012). 동일본 대지진 구조현장에 파견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관련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4(2), 167-179
- *양승경 (2012). 유방암 환자의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PTSD)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우재희 (2012). 신체적, 성적학대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알코올중독자의 재발위험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경희 (2008).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적응 모형 구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수진 (2003). 아동기 성학대가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두 (2013). 외상 경험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대처행태와 PTSD와의 관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8, 183-203.
- 유지현, 박기환 (2009)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인들: 우울,

- 불안,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833-852
- 윤명숙, 김서현 (2012). 대학생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2), 5-31.
- 윤명숙, 이준석, 지홍, 김성혜 (2012). 알코올중독자의 성장기 가정폭력 외상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 재발위험성의 매개효과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3), 87-115.
- *이상준 (2013). 아동기 학대 경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 가족과 문화, 25(1), 96-120.
- *이선미, 김동인 (2000). 교통사고 후 신체 손상 환자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정신의학, 39(5), 797-808.
- *이선미, 김정희 (2002).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47-563.
- 이선미, 유성경 (2013).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불안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09-1226.
- *이성진, 조용래 (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지각된 통제감과 회피 대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15-436.
- 이시중, 임세라 (20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동의 우울·불안 및 자기효능감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2(2), 215-238.
- 이연호 (2003a). 노인학대 위험요인 및 특성이 학대로 인한 피해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2), 105-123.
- 이연호 (2003b). 학대 경험노인의 심리. 한국가족복지학, 11, 35-57.
- 이영점, 최은봉 (2011). 가정폭력 PTSD 척도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3), 263-281.
- *이유미 (2009). 아동기 성학대의 장기 후유증과 관련 변인들의 성차: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진, 연규월, 우행원, 김영철, 임원정 (2002). 외상 환자에서 의식소실 유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율, 증상 양상,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1(4), 660-669.
- 이은영 (2009).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임경희, 김정범, 류설영 (2007).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부상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정신의학, 46(1), 79-86.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은희, 김혜진, 홍경자 (2002).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상담학연구, 3(1), 185-202.
- 이인정 (2012). 스트레스가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2(3), 522-

- 557.
- 이재광, 박두병, 기백석 (1996).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환자에서의 외상 후 기간과 정신과적 증상과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35(1), 114-121.
- 이재영, 기백석, 조순동, 서동수 (2003).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증상 정도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 *정신신체의학*, 11(1), 36-43.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간 관계에서 불안장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이혜련, 신미경, 문현숙 (2013). 간호사의 직장 폭력 경험에 따른 분노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2(3), 240-248.
- 임구원 (2011). 노인학대가 노후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21, 67-84.
- 장희순, 이승연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9-48.
- 전경구 (2000). 정서와 건강간의 관계: 문화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175- 199
- 전소영, 하주영 (2012).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 사건 경험과 전문직 삶의 질 및 신체적 증상. *성인간호학회지*, 24(1), 64-73.
- *정서영, 김명자 (1996). 부부간의 심리적, 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217-230.
- 정성희, 송현주 (2012).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용/동작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2(2).
- 정주은, 천성문 (2013).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매로 살아가기-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55-83.
- 조선덕, 박재범 (2013).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련성.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3(5), 219-224.
- 조용래 (2013).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외상 후 부정적 인지와 대처전략이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과 정서증상에 미치는 효과. *인지행동치료*, 13(3), 445-467.
- 조한익, 최종환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초기 성인기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용서신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9), 125-148.
- 최대현, 심호규 (2013). 심리극집단프로그램이 성매매경험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61-183.
- 최수아 (2013).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및 K-HTP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3(1), 251-269.
- 최원선, 조성애, 김경연, 조영승, 구정완, 김형렬 (2011). 버스 운전사의 근무 중 사고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지*, 23(2), 139-148.

- 최윤경 (201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지
속노출치료의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인
지행동치료, 10(1), 97-116.
- 최지영 (2013). 성폭력 피해 아동의 귀인 및
지각이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3(1),
65-86.
- 하진의 (2013). 성인 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
트레스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
와 반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433-3452.
- 한인영, 강향숙, 백형의 (2013). 북한이탈여
성들의 성적 외상 경험. 사회과학연구,
29(3), 187-207.
- 한인영, 이지영, 구승신 (2009). 군 병사들이
복무 중 경험한 외상적 사건과 PTSD 증
상, 우울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군
사회복지학, 2(2), 25-51.
- 허정윤, 유영달 (20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
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1), 177-211.
- *홍창희, 박유숙 (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 심리과학연구,
2, 1-20.
- 황연미 (2009) 여대생과 기혼여성의 정서표현
억제 태도와 우울 및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73-198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
- Bax, L., Yu, L. M., Ikeda, N., Tsuruta, H., &
Moons, K. G. M.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IX: Comprehensive free
software for meta-analysis of causal research
data.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6(1),
50-60.
- Besser, A., & Neria, Y. (2010). The effects of
insecure attachment orientation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posttraumatic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ivilians exposed
to the 2009 Israel-Gaza war: A follow up
cross-lagged panel design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335-341
- Besser, A., Neria, Y., & Haynes, M. (2009). Adult
attachment, perceived stress, and PTSD among
civilians continuously exposed to terrorism in
southern Isra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851-857.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
- Bonanno, G. A., Keltner, D., Holen, A., &
Horowitz, M. J. (1995). When avoiding
unpleasant emotions might not be such a bad
thing: Verbal-autonomic response dissociation
and midlife conjugal berea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75-989.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
Rothstein, H. R. (2011).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United Kingdom:

- John Wiley & Sons.
- Bryant, R. A., & Harvey, A. G. (1995). Avoidant coping style and post-traumatic stress following motor vehicle accid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6), 631-635.
- Burt, M. R., & Katz, B. L. (1988). Coping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1), 345-358.
-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92-100.
- Clements, C. M., Sabourin, C. M., & Spiby, L. (2004). Dysphoria and hopelessness following battering: The role of perceived control, coping, and self-esteem.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1), 25-36.
- Clements, C. M., & Sawhney, D. K. (2000).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Control attributions, dysphoria, and hopelessnes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2), 219-240.
- Clohesy, S., & Ehlers, A. (1999). PTSD symptoms, response to intrusive memories and coping in ambulance service worker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3), 251-265.
- Cochran, W. G. (1954). The combination of estimates from different experiments. *Biometrics*, 10, 101-129.
- Coffey, P., Leitenberg, H., Henning, K., Turner, T., & Bennett, R. T. (1996). Mediators of the long-term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Perceived stigma, betrayal, powerlessness, and self-blame. *Child Abuse & Neglect*, 20(5), 447-455.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nkel-Schetter, C., Feinstein, L. G., Taylor, S. E., & Falke, R. L. (1992). Patterns of coping with cancer. *Health Psychology*, 11(2), 79.
- Ehlers, A. (2010). Understanding and treating unwanted trauma memorie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Psychology*, 218(2), 141-145.
- Elwood, L. S., Hahn, K. S., Olatunji, B. O., Williams, N. L. (2009).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the development of PTSD: A review of four vulnerabilities and the proposal of an integrative vulnerability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1), 87-100.
- Filipas, H. H., & Ullman, S. E. (2006). Child sexual abuse, coping responses, self-blam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dult sexual re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5), 652-672.
- Fleming, R., Baum, A., & Singer, J. E. (1984). Toward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939.
- Foa, E. B., Steketee, G., & Rothbaum, B. O. (1989). Behavioral/cognitive conceptualization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 Therapy*, 20(2), 155-176.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992-1003.
- Folkman, S., & Moskowitz, J. T. (2004). Coping: Pitfalls and promi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745-774.
- Ginzburg, K., Solomon, Z., & Bleich, A. (2002). Repressive coping style, acute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myocardial infarction. *Psychosomatic Medicine*, 64(5), 748-757.
- Higgins, J., Thompson, S. G., Deeks, J., & Altman, D. G. (2003). Measuring inconsistency in meta-analysis. *British Medical Journal*, 327(7414), 557-560.
- Holahan, C. J.,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946-955.
- Lamprecht, F., & Sack, M. (2002).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visited. *Psychosomatic Medicine*, 64(2), 222-237.
- Littleton, H., Horsley, S., John, S., & Nelson, D. V. (2007). Trauma coping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meta analysi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6), 977-988.
- Masel, C. N., Terry, D. J., & Gribble, M. (1996). The effects of coping on adjustment: Re-examining the goodness of fit model of coping effectiveness. *Anxiety, Stress & Coping*, 9(4), 279-300
- Ozer, E. J., Best, S. R., Lipsey, T. L., & Weiss, D. S. (2008, August).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Washington, DC, US.
- Rosenthal, R. (1991). *Meta-analytic procedures for social research*(2nd ed.). Newbury Park, CA: Sage
- Skinner, E. A., Edge, K., Altman, J., & Sherwood, H. (2003).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9(2), 216-269.
- Snyder, C., & Pulvers, K. M. (2001). Dr. Seuss, the coping machine, and "Oh, the places you'll go?" *Coping with Stress: Effective People and Processes: Effective People and Processes*, 1.
- Spurrell, M. T., & McFarlane, A. C.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oping after a natural disaste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8(4), 194-200.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erry, D. J., Tonge, L., & Callan, V. J. (1995). Employee adjustment to stress: The role of coping resources, situational factor, and coping responses. *Anxiety, Stress & Coping*, 8(1), 1-24
- Tennen, H., Affleck, G., Armeli, S., & Carney, M. A. (2000). A daily process approach to coping: Link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55(6), 626-636.
- Tobin, D. L., Holroyd, K. A., Reynolds, R. V., & Wigal, J. K. (1989).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4), 343-361.
- Ullman, S. E., Townsend, S. M., Filipas, H. H., & Starzynski, L. L. (2007). Structural models of the relations of assault severity,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elf blame, and PTSD among sexual assault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23-37.
- Vitaliano, P. P., Maiuro, R. D., Russo, J., & Becker, J. (1987). Raw versus relative scores in the assessment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1), 1-18
- 1 차원고접수 : 2015.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3.

The Meta-analytic Approach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Maladjustment

Kim, So Yeon	Kim, Sunmee	Kim, Boyoung	Yang, Eunjoo
Dep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McGil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coping strategies with meta-analyses. A total of 17 studies including participants with traumatic experiences were analyzed. The coping strategies were categorized by two distinctive classification systems, approach-avoidance copings and behavior/problem-cognition/emotion oriented coping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as represented by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The analyses yielded that avoidance coping was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maladjustment, but approach coping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Behavior/problem oriented coping wa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nd cognition/emotion oriented cop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When considering these two classification systems together, both behavior/problem oriented-avoidance coping and cognition/emotion oriented-avoidance coping were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maladjustment. However, behavior/problem oriented-approach coping was not associated with any type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cognition/emotion oriented-approach coping was positively related only to anxiety. This result implies that avoidance coping is closely related to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the decrease in the use of avoidance coping would be an important task in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trauma.

Keywords: trauma, coping, depression, anxiety, PTSD